

[애국소설] 임팩트 코리아(제10화):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얘기하다

오랜만에 제이슨을 만난 장동선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장동선이 먼저 얘기를 꺼낸다.

“세월이 참 빨라... 우리가 그 시위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어제 같은데,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

제이슨이 추임새를 넣으면서 맞장구를 쳐준다.

“그렇지,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흘렀다는 말이 남들한테는 진부하게 들릴지 몰라도, 되돌아 보면 늘 시간은 그렇게 쏜 살처럼 순식간에 흘러갔지...”

장동선이 근황을 물어본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제이슨이 짤막하게 답한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나가지.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아서 정신 없이 살아...”

장동선이 자신의 특파원 생활을 얘기한다.

“나도 한국에서 기자생활할 때 사건사고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돌이켜보면 무슨 정신나간 인간처럼 그렇게 무엇에 쫓겨서 살았던 것 같애...”

이렇게 말을 토해내고는 장동선이 낄낄거리며, 한편으로는 허탈한 웃음을 지어보인다.

제이슨이 묻는다.

“어때, 특파원 생활은 할만한가?”

장동선이 답한다.

“뭐, 타이틀이 특파원이지,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동안 한국에서 한세월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며 고생했으니까, 회사에서 내 콧구멍에 바깥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미국 간 김에 좀 이것저것 둘러보고 견문 좀 넓혀보라고 기회를 준 것도 있고, 아무튼 뭐 그래.”

제이슨이 웃는다.

“그래, 미국 바람을 콧구멍에 좀 쐬어보니까, 어떤 것 같애? 좀 시원한가?”

장동선도 같이 씩 웃는다.

”어, 뭐, 그 바람이 뭐 그 바람이지. 이 회사 선풍기 바람이나, 저 회사 선풍기 바람이나, 뭐 그게 그거고, 달라봤자, 그놈이나 이놈이나 오십보 백보 아닌가.“

제이슨이 화제를 미국 언론계로 돌린다.

”그래, 미국에서 특파원으로 얼마동안 활동해 보니까, 미국쪽 언론계도 좀 접해보고 돌아다녔나? 이쪽 바닥은 어떤 것 같애?“

장동선이 웃으며 답한다.

”뭐, 나야, 신문에 글쟁이로 글은 그동안 쓰고 다녔지만,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나보다는 자네가 몇 수 위에 있지 않은가? 자네가 좀 나를 지도편달 해줘야지...“

제이슨이 다시 씩 웃는다.

”뭐, 미국 언론계도 언론계 바닥이니까, 뭐 크게 다를 것이 뭐 있겠어? 같거나 비슷한 면이 많고, 다만 풍토가 다르니까 정도에 따라서 다른 면도 얼마간 있겠지.“

장동선이 이번에는 좀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얘기를 꺼낸다.

”그래, 그렇겠지. 그런데 말이야, 기왕 미국 언론계 얘기가 나온 마당에, 자네가 좀 대략이나 마, 미국 언론이나 언론계 현황에 대해서 소감이랄까 코멘트랄까, 뭐 핵심적으로다가 몇 마디, 몇 자락 좀 나한테 짚어줬으면 하는데 말이야“

제이슨이 옅은 미소를 입가에 짓는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요새 세상에 맨입으로 자꾸 뭘 물어보려는 사람들이 있어. 요새말이야...“

장동선이 답한다.

”우리끼리 사이에 무슨 강연료 주고 받을 일은 아니고, 뭐,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회사에 얘기해서 무슨 특별한 사은품이나 이벤트 관련해서 특별상품이나 티켓 같은 것이 있으면 한뭉터기로 스폰서해 줄테니까 말이야. 지금 말고 나중에...“

제이슨이 답한다.

“내가 무슨 사은품 정도에 혹하는 것이 어울릴 군번은 아니잖은가, 그리고 나중, 나중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에 신빙성이 실리지가 않아.”

장동선이 그냥 웃는다.

제이슨이 의자 위에서 한 다리를 꼬는 자세로 고쳐 앉으며 말을 잇는다.

“그래, 거, 뭐, 농담플레이는 이 정도로 하고 말이야. 내가 그동안 대략이나마 스쳐지나가는 느낌, 그 상태로서의 느낌으로 몇 마디 미국 언론계에 대해 던져보지.”

장동선이 순간 눈빛이 짧게 번뜩이며 자세를 제이슨과 비슷하게 고쳐 앉는다.

“그래, 귀동냥으로 그런 얘기 몇 마디 들어야, 나도 기사 쓰는데 도움이 되지,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누가 미국 언론계 동향을 물어보면, 나도 무슨 썰을 풀어야 될 것 아닌가? 제이슨이 좀 도와줘...”

제이슨이 웃으며 자신 특유의 천진난만한 어린이 같은 표정을 짓는다.

“오케이, 어디부터 얘기해줄까?”

장동선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좋아, 뭐 우리는 언론계 밥을 먹은 사이니까, 뭐 기초적인 얘기들은 다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 뭐, 좀 색다른 얘기나 깊숙한 얘기, 뭐 그런 것 없을까?”라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언급했다.

제이슨이 답한다. “그렇지, 뭐 우리끼리니까, 뭐 대학수업에 나오는 그런 언론학 개론 얘기 같은 것은 필요가 없겠지,”

장동선이 맞장구 친다.

“그래, 뭐 색다르거나 깊숙한 얘기 좀 해봐.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김에 나도 뭐, 몇 마디 건져가는게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제이슨이 책상 모서리를 가볍게 탁 치며, “어휴, 이런,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농담따먹기 인사만 하다보니, 음료수를 주문 안했구만, 일단 나는 커피부터 좀 마셔야겠어.”

제이슨이 종업원을 불렀다. 자신은 커피를 마시겠다고 하고, 장동선은 파인애플 주스를 마시겠다고 했다.

곧 서빙된 커피를 마시면서 제이슨이 얘기를 풀어놓는다.

“자네도 알다시피, 현대사회는 대중사회 아닌가, 그래서 현대대중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상 언론과 사회, 언론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지.

현대 미국사회와 미국정치를 이해하려면, 미국 언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살펴보면, 그 특징적인 통찰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의미있는 통로이자 기제(메커니즘)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말이야, 미국 언론에 대해 얘기하려면,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

그리고 미국사회와 미국정치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얘기해야 되고, 미국경제와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

곧바로 미국언론 얘기를 하지 말고, 약간 서론을 길게 돌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도, 미국사회와 미국언론을 깊이있게 이해하려면, 오히려 그런 접근 방법이 나중에 보면 더 빠른 설명 방법이 될 것 같애.

자네가 색다르거나 깊숙한 얘기를 주문하기에, 내가 잠깐 생각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보려고 하는 것이야.

어때?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볼까? 얘기를 그 지점에서 좀 풀어나가고 싶은데 말이야”

제이슨이 커피를 마시면서 몇 분 정도 줄곧 얘기를 이어간 후, 그에 대한 장동선의 대답을 묻자 장동선이 답한다.

“나야 땡큐지. 대환영이야. 오히려 그래주면 내가 고맙지. 그런 식으로 설명해 보게나.”

(계속 됩니다...)

[작성] 애국튜브 편집부

www.aeguktube.com

[작성일] 2023년 5월 29일 월요일